

한글-Korea 생활속담

: 2026 6 23 8:18

타이틀	설명
다 된 죽에 코 풀기	거의 다 된 일을 망쳐버리는 주책없는 행동을 이르는 말
다람쥐 쳇바퀴 돌듯	결말도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함을 이르는 말
달갈로 바위 치기	도저히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	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찾는다는 말
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기	옳지 못한 짓을 하고는 드러나게 되자 엉뚱한 수작으로 남을 속여넘기려고 다른 것을 남에게 보이는데 그 숨씨가 서투름을 이르는 말
닭 쫓던 개 먼산 바라보듯	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쫓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,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어떤 일이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어 맥이 빠져 민망해 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
도둑이 제 발 저리다	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는 말
달리는 말에 채찍질	기세가 한창 좋을 때 더 힘을 가한다는 말
도둑맞고 사립 고친다	적절한 때를 놓치고 일을 당한 후에야 뒤늦게 준비한다는 뜻으로, 평소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됨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